

No.10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1. 23 ~ 11. 29



사단 **한일경제협회**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□ 금주의 이슈

-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급속 팽창
- 차세대 전투기 F-35로 결정
- 어머니가 딸을 위해 대리모 역할
- 캠리 등 日 중형차 한국서 더 잘 팔려
- 한국기업 투자펀드, 일본서 'Buy Korea' 바람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한·중·일 공동표준 제정 추진
- 도요타 미국서 사상 최대 리콜, 렉서스 등 400만대
-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자동차부품회사의 변신
- 엔화 장중 달러당 84엔 기록, 16년만에 최고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간 나오토 부총리, '환경세 이르면 내년 도입' 언급
- 2030년까지 신축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
- 과학, 환경 분야 예산 대폭 삭감
- 200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 개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한일 상장기업의 신사업 진출현황, 전경련

★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Japan Weekly Digest
(No.10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○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급속 팽창

- 미국과 유럽의 주요 6개 거래소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올해 10월까지 47억t으로 **전년 동기 대비 2.2배 증가**
- 온실가스배출권은 2005년 유럽에서 시작된 선물 거래로 EU 역내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초과한 배출량만큼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거래

○ 차세대 전투기 F-35로 결정

-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항공전투 능력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F-35(90억엔)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, 2010년 배치 예정
- 2007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인 F-22 100대(300억 달러 규모)를 구입하려 했으나 미국의 수출 금지 조항에 묶여 무산되어 대신 F-35를 구입

○ 어머니가 딸을 위해 대리출산한 것에 대한 법적 논란

- 임신이 불가능한 딸의 사정을 안타까워한 53살의 어머니가 대리모를 자청해 사위와 딸의 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하여 지난 5월에 아이를 출산
- 일본은 대리출산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낳아준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 현행법이 적용되고 있어서 법제도 정비에 따른 논란이 예상

○ 캠리 등 日 중형차 한국서 더 잘 팔려

- 중대형차는 일본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반면 한국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음. 현재 일본 판매 1위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(월 3만대 수준)

○ 한국기업 투자펀드, 일본서 'Buy Korea'바람

- 한국과 일본 기업이 동시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일본 현지에서 인기
- 유진투자증권과 일본 아이자와증권이 판매한 주식형펀드가 5일 만에 총 10억 엔(약 130억원) 거래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한·중·일 공동표준 제정 추진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~19 양일간 중국에서 열린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이 고령자·장애인 관련 품목들부터 단계적으로 국가표준으로 발전시켜 이를 국제표준화하는데 합의
- 정보교환 목적으로 시작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서 3국이 공동표준제정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단일 경제권의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

○ 도요타 미국서 사상 최대 리콜, 렉서스 등 400만대

-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렉서스 주력모델 등 400만대에 대해 가속페달을 무상 교환해주는 리콜을 실시
- 가속 페달이 운전석 바닥 매트에 걸리는 문제로 지난 8월말 렉서스 ES350이 폭주하여 자동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

○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자동차부품회사의 변신

-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NTN은 매출액의 3%를 투자하여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모터-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 중
-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하이브리드카·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제품의 40%를 차지하던 엔진 관련 부품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임

○ 엔화 장중 달러당 84엔 기록, 16년만에 최고

-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달러 값이 폭락
- 일본 경제는 최근 만성적인 디플레이션, 기업들의 대규모 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, 민주당 정권의 정책 부재 등으로 소위 '3D 불황' 위기
- 후지이(藤井裕久) 재무상은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하토야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엔화 강세를 용인하는 입장
- 경단련 등에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간 나오토 부총리, ‘환경세 이르면 내년 도입’ 언급
 - 하토야마 정권의 공약인 ‘2020년까지 온난화가스 1990년 대비 25% 삭감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 표현
 - 환경세 도입과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로 연간 2조5천억엔의 세수 감소 예상
- 2030년까지 신축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
 - 경산성은 24일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, 최첨단 기술과 태양광발전 도입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제로(0)로 할 것을 제언, 필요투자액은 16조엔으로 예상
- 무역흑자 전년대비 20.4% 증가한 1조739억엔
 - 재무성이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휴대전화용 영상기기 부품 수출 증가로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
 - 전체수출 : 4조 9,007억엔(5.4% 증가), 전체수입 : 3조 8,268억엔(1.8% 증가)
- 과학, 환경 분야 예산 대폭 삭감
 - 현재 진행 중인 ‘예산공개심의’에서 슈퍼컴퓨터 개발 예산(내년도 268억엔)이 전면 동결, 이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 4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
 - 경산성이 추진하는 ‘저탄소사회 실현프로젝트(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: 16억엔)’, ‘국제에너지 소비효율화 모델사업: 102억엔) 등의 예산이 보류되는 등 환경 분야 사업도 삭감 대상
- 200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 개최
 - 25일 ‘200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’이 19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도쿄 빅사이트전시장에서 개최. 개막식 행사에 모리 요시로 일본 전 총리와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, 권철현 주일대사 등이 참석
 - 25일 한일경제협회 주관, ‘한일 신산업무역회의’를 개최, 부품소재협력방안 등 논의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한일 상장기업의 신사업 진출현황 분석 및 시사점’, 전경련, 2009.11.09

- 신재생에너지, 환경분야의 신규사업투자는 한국기업은 늘고 있으나, 일본기업은 투자가 담보하고 있는 상황(신재생 3개사, 환경 21개사)
 - 이는 한국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녹색산업이 일본에서는 선행 투자되어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
- 일본기업은 서비스분야의 신규투자가 한국기업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정책지원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
 - 저출산, 고령화 등 일본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컨설팅 등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
 - 서비스사업 중 인력아웃소싱 서비스사업은 한국기업은 관심이 적는데 반해(1개사), 일본기업에서는 관심이 많았음(26개사)
 - 한국의 서비스시장은 도소매,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 위주로 영세성, 차별 규제, 노사문화의 경직성 등으로 고용서비스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기업 투자가 저조
 - 정부의 규제완화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, 자금조달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
-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은 한일 양국기업이 비슷한 수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한국은 제조기업인 반면, 일본은 대형 상사들이 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
 - 온실가스 감축협약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종합상사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
 - 한국 : 한일건설, 한일시멘트, KT&G, 영창실업, 신성이앤지, LG화학
 - 일본 : 이토추 상사, 스미토모 상사, 미츠비시 상사, 미츠이 물산
 - 최근 LG상사가 외국업체에 배출권 일부를 판매하는 탄소배출권 사업모델을 확보하고 있음